

일본 수출 동향 '예의주시'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 일본 사태로 안심은 '금물'

도내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가 하반기 수출 달성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분석이다.

지난 31일 전북도 농축수산물식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전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1억 7672만 달러를 기록해 2018년 상반기 1억 6036만 달러 대비 10.2% 증가했다.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율은 전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증가율 2.1%의 5배에 달한다.

도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3억 4000만 달러로 정한 상태로 무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일본 수출규제가 농수산물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북도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수출액은 246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했다. 일본은 전북도 전체 관련품목 수출액의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파프리카(480만 달러), 사료(457만 달러), 미른김(372만 달러) 등이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수출 어려움이 큰 사실을 교훈삼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전북도는 민약의 경우 일본 내 통관 지연, 검역 강화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규제에 대비 수출농가들이 잔류농약 검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향후에도 수출농가, 일본 바이어

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산 수출농산물에 대한 일본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전북도는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신규 거래선 발굴, 주요 해외 바이어 및 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 관측행사 개최 등 공격적인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최대 농수산물 수출국인 중국은 물론 홍콩, 대만 등 중화권까지 확대해 수출기업에 대한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현지 유통망 확대 등 중화권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식품국장은 "최근 한, 일간 통상마찰이라는 변수 발생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졌으나 전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적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국회 방일단, 일본으로
일본의 경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방일단의 단장 서청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공공부문 최초 직급제 폐지

순수한 직무중심의 인사 혁신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기틀 마련

새만금개발공사가 직무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오늘부로 공공부문 최초로 직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편은 수평적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단행됐다.

'직무급'은 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과 관계없이 직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또 직급제 폐지와 더불어 인사관리를 직무급제 본연의 모습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탄력적인 인사제도도 도입했다.

승진과 직무 순환의 일환으로 사내 직위 공모제를 도입해 특정 직무에

대해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사는 공공부문 최초로 직급제 폐지를 단행하는 만큼,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강판문 사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조직 운영 형태를 전환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나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소재로 참신한 아이디어 '뽀뽀'

콘텐츠 메이커톤 대회 23일 개최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전북의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창작자를 발굴하기 위해 전라북도 콘텐츠 메이커톤 대회를 8월 23일부터 3일간 군산 에이브호텔에서 개최한다.

메이커톤이란 만든다(make)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개발자 등이 팀을 이루어 무라비일 동안 쉽 없이 아이디어를 내어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대회를 의미한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전라북도와 접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발전시켜

콘텐츠분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콘텐츠분야 전문가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참가기간 팀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멘토들의 멘토링, 팀별 프로젝트 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대회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한 3개 팀에게는 향후 메이커톤 대회에서 발표할 콘텐츠를 사업화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메이커톤 대회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또는 팀 창작자를 8월 14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5G 상용화로 콘텐츠의 가치가 나날이 높



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콘텐츠를 즐기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덥다 더워' 전북 온열질환자 속출... 올들어 15명 발생

장수군을 제외한 전북도내 13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한편 한낮에는 발열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9일까지 도내에서 발생

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15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80대 1명, 70대 2명, 60대 4명, 50대 3명, 40대 2명, 30·20·10대 각각 1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발생 증상별로 보면 열탈진이 5명, 열경련이 4명, 열사병과 열실신이 각각 3명 등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체온조절 중추에 장애가 생겨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열경련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117명)보다 환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8월로 접어들면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라며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환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볕 더위가 가장 심한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나 홀로 농사일을 한다거나 체력 소모가 많은 외부활동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스포츠로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요"

군산시,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로 활성화도도 볼링 · 수상스키웨이크보드 · 골프 · 탁구 등 다채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8월에도 다수의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며 시원하게 무더위를 날려 줄 예정이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국제대회 3개, 전국규모 대회 10개, 각종 생활체육대회 20여개를 개최해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 가족 등을 포함한 외부 방문객들 약 3만명이 군산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반기 스포츠 열기에 이어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19 군산 로드필드컵 SBS 프로볼링대회'를 시작으로 '2019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가 개최된다.

군산로드필드컵 SBS 프로볼링대회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군산코리아나볼링장에서 개최되며, 지난해와 달리 여자부(레귤러)가 신설돼 참가인원이 증가하면서, 대회 기간이 길어져 체류하는 외부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군산호수(육산수원지)에서 개최된다.

대회종목은 수상스키, 케이블웨이크보드, 수상레저체험이며, 내년에 개최되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등

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수상레저 체험교실을 병행 운영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군산컨트리클럽에서 '제30회 중고연맹회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남녀 골프 선수대회'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군산대학교체육관에서 20여개 팀이 참가하는 '제1회 한중일 아시아 대학 학생 오픈 탁구대회'가 개최된다.

시는 앞으로도 '스포츠'에서 '관광'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전국대회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